

2학년 학생들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고쳐 쓴 소설

[저작권자: 2020년 송정중 2학년 학생들, 무단전재 및 배포 금지]

아래의 소설들의 저작권은 송정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온오프라인의 지면에 실을 수 없습니다.

○ <전지적 작가 시점>

소설 속의 작가가 이야기를 서술함.(실제 작가 아님. 소설 속의 작가임.)

소설 속의 작가가 모든 등장인물들의 말, 행동, 생각, 속마음 등 모든 것을 서술할 수 있습니다.

소설 속의 작가는 이 소설 속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 (전지주지: 모든 것을 다 안다.)

서술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등장인물이 아니므로 '나'가 등장하지 않음.

점순이라는 아이와 남주라는 아이는 아랫집 윗집에 사는 이웃이자, 그들의 부모는 아주 중요한 관계인 지주와 소작농 관계이다. 점순이는 여러 해 동안 남주라는 아이에게 관심이 없었고 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점순이는 남주에게 관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남주는 점순이네 부모님과 자신의 부모님이 중요한 관계인 지주와 소작농이라서 혹시 점순이와 친해지더라도 한다면 자신의 집에 불이익이 있을까 봐 감자를 거절해 버렸다. 그렇게 남주가 거절하자 점순이는 기분이 나빠졌다. 그리고 점순이는 남주의 관심을 끌려고 남주가 가장 아끼는 것 중 하나라고 알고 있는 수탉을 몰래 닭장에서 빼와서 괴롭히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멍청한 남주는 그걸 또 이기겠다면서 닭에게 온갖 방법을 다 쓴다. 그걸 본 점순이는 이렇게 생각한다. '남주 저놈은 눈치도 없네 그래도 괜찮게 생겼으니까 뭐~' 그렇게 더 남주에게 빠진 점순이는 남주의 닭을 심하게 괴롭힌다.

요즘 점순이는 남주를 볼 때마다 다른 눈빛으로 본다. 전에는 아는 남자 애 옆집 남자 애 수준인데 요즘 눈빛이 다른 것이다. 어떻게 다르냐면 진짜 연인들의 눈빛이다. 눈에서 꿀이 떨어진다. 점순이는 요즘 소설과 같은 책을 읽는 거 같다. 왜냐하면 요즘 감성이 충만해 보이기 때문이다. 조금만 있으면 점순이가 남주에게 고백을 할 것만 같아 보인다. 점순이는 문득 생각이 났다. '선물을 주면서 고백을 하면 남주가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됐다. 점순이는 고민을 한다. 먹을 걸 줄지 물건을 줄지 점순이는 떠올랐다! '그래 역시 사람은 먹는 거를 줘야지 행복해!'라는 생각에 집에 있는 물건을 찾아보더니 감자 세 알이 보였다. 그래서 점순이는 감자 세 알을 준비했고 감자는 구워야 더 맛있다는 걸 아는 점순이는 감자를 정성껏 구워서 진심을 담아 고백을 하러 간다. 점순이의 고백 날 남주가 울타리를 쌓고 점순이랑 대화 중 점순이가 "느그 집엔 이런 거 없제?" 이러며 남주에게 주었다. 하지만 남주의 얼굴이 어두워진다. 뭔가 이상하다 남주가 감자를 다시 점순이에게 준다. 점순이는 놀랐다 남주가 왜 안 받았는지 궁금해 하기 시작했다. 남자는 점순이의 말 한마디가 마음의 상처였던 것 같다.

갑자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점순이에게 덕수가 연애상대로 보이기 시작했다. 덕수가 감자를 받고 좋아할 것을 생각하며 점순이는 서둘러 감자를 구웠다. 덕수 일하느라 힘들겠지? 얼른 구워져라. 점순이는 덕수에게 줄 감자를 들고서 덕수에게로 갔다. 줄때 어떻게 말하지? 점순이는 가는 도중에도 어떤 말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다. 그렇지만 결국 점순이가 건넨 말은 “너네는 이런 거 없지?”였다. 그러자 덕수가 기분이 안 좋은지 감자를 받지 않았다. ‘왜 안 받는 거지?’ 점순이는 덕수가 자신의 감자를 받지 않아서 뼈쳐 버렸다 자신의 감자를 안 받은 덕수가 점순이 자신을 좋아할 때까지 관심을 받아보기로 했다.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아 그게 있지?’ 하며 생각하고는 수탉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러고서는 거의 매일 수탉으로 덕수네 집 닭과 싸움을 붙였다.

요즘 준식이는 점순이를 만나기 두렵다 처음 감자를 점순이가 권했을 때부터 평소 점순이와 다르다는걸 느꼈다 너희 집엔 이거 없지? 라며 감자를 주어 자존심이 상해 안 먹긴 했지만 그런 말을 안 하고 줬으면 먹었을 것이다. 사실은 감자를 엄청 좋아한다. 거절을 하니 점순이가 부끄럽고 화가 났는지 얼굴이 엄청 빨개지고 화가 났다. 준식이는 그때부터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 점순이가 준식이의 닭을 때리고 있을 때 사실은 무서웠다 닭도 저렇게 때리는데 사람이라고 못 때릴 거 없지 않나 싶어서 그때부터는 점순이가 무서웠다 하지만 준식이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 준식이도 우리 닭에게 고추장을 먹여 점순네 닭과 싸움을 붙였지만 점순네 닭은 싹닭이라 그런지 어림도 없었다. 그때는 솔직히 준식이도 자기네 닭을 원망했다 점순이가 나중에 자신의 집 닭을 죽이는 걸 봤을 땐 진짜 화가 엄청 났지만 점순네 부모님과 자신의 부모님에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참았다. 원래는 나중에 점순이와 동백꽃 앞에서 만날 때 준식이는 결판을 내려고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당해온 게 너무 서러워서 준식이는 눈물이 나와 버렸다. 그러자 점순이가 다신 안 그럴 거냐고 물었고 준식이는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는 잘 몰랐지만 알겠다고 대답을 해야 할 거 같아서 알겠다고 했다. 근데 갑자기 점순이가 중심을 잃고 쓰러져 준식이와 함께 동백꽃으로 파묻혔다 그러자 갑자기 심장이 엄청 뛰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점순이가 지금까지 왜 자신한테 그런 행동을 했는지 조금은 알 거 같았다.

점순이가 요즈음 이상하다 갑자기 안하던 말도하고 많이 착해진 것 같다. 그런데 어느날 점순이가 준식이에게 구운 감자 3개를 들고서 왔다. 구운 감자에는 흙과 먼지가 많아서 껍질을 일일이 따기 싫기 때문에 거절을 했다. 하지만 평소 같으면 "알겠다." 하고 갈 녀석이 5분이 지나서도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인기척이 느껴지는 것이다. 빨리 가라고 말하려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준식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평소에 완전히 장사처럼 힘도 세고 그렇게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도 않고 준식이에게 눈물 한 번 보이지 않던 녀석이 눈에서 물이 똑똑하고 떨어지는 것이다. 혹시 자신의 감자를 안 받아서 그런가? 생각해서 다시 받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점순이는 준식이에게 욕을 하고 그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사과를 나중에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한 준식이는 지금 돌이켜보면 이 사단의 중점이 자신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점순이는 요새 옆집 점돌이가 마음에 든다. 그래서 점순이는 집에 있는 감자를 몰래 몇 개 가져와 열심히 구웠다. 그리고 마음을 먹고 점돌이에게 "느 집엔 이거 없지?"라고 말하며 감자를 준다, 하지만 점돌이는 그런 말투에 화가 나서 "난 그런 거 안 먹는다. 너나 먹어라."라며 밀어낸다. 점순이는 매우 창피하고 열심히 구워준 감자를 거절당했다는 느낌에 얼굴이 빨개지고 눈물까지 나왔다. 그래서 화가 난 점순이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점돌이에게 복수하려고 자신의 집 수탉과 점돌이네 수탉을 계속해서 싸움을 붙인다. 그걸 계속 보는 점돌이는 볼 수밖에 없는 자신의 형편에 계속 화만 내며 보기만 한다. 점순이는 화를 내는 걸 보고 살짝 마음이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점순이의 화도 덜 풀려 욕까지 해가며 괴롭힌다.

요즘 점순이가 근처에 사는 남주를 좋아하고 있다 개가 뭐가 좋아서 반한건지 모르지만 그 애에게 가져다 줄 감자까지 굶고 있다. 다 구운 다음 남주에게 갖다 주었다.

"느 집엔 이런 거 없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런 말을 하면서 쫓다. 그러자 당연히 남주는 기분이 나빠 받기 싫어했다.

점순이는 화가 나 집에 와서 화를 잔뜩 내더니 다음에는 그 애한테 욕을 하고 그 집 닭까지 괴롭혔다. 점순이는 고작 감자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고 다니는 걸까?

점순이는 오늘도 순돌이의 관심을 얻기 위하여 닭들을 싸움을 붙여 놓는다. 그걸 본 순돌이는 지계를 내팽겨치고 점순이네 수탉을 죽여 버렸다. '어.. 나는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 순간 점순이가 순돌이에게 닭을 왜 죽이냐고 따졌다 그러다가 순돌이는 자신의 가족이 마을에서 내쫓길까봐 서러움이 북받쳐 울어버렸다. 그랬더니 점순이가 다가와서 "이 다음부터 안 그럴 터냐?" 라고 물었다. 순돌이는 그제서야 두려움이 사라졌다. 당연히 하다고 말하며 일어나니까 점순이가 갑자기 내 어깨를 잡아 애가 왜 이러나 싶은 동시에 동백꽃 속으로 파묻혀버렸다 알싸한 꽃향기와 함께 순돌이는 설렘을 느꼈다.

점순이는 요즘 남주가 눈에 들어온다. 남주가 무슨 행동을 하든 멋있어 보인다. 그래서 점순이는 남주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감자를 구웠다. 감자를 구워 남주에게 갖다 주면서 괜히 놀려본다.

하지만 점순이의 말의 화가 난 남주는 그 감자를 받지 않는다. 점순이는 무안하면서도 괜히 화난 마음에 남주가 자신에게 관심을 주게 하도록 장난을 건다. 남주가 뺨감을 하러 간 사이 점순이는 자신의 닭과 남주의 닭을 싸움 시킨다.

남주가 돌아와 닭싸움을 중지 시키고 점순이에게 뭐라 뭐라 하지만 점순이는 듣지도 않고 뺨 가버린다. 다음날 또 닭싸움을 시킨 점순이는 남주에게 혼나 화가 나 남주에게 욕을 한다. 다음날 남주는 점순이가 또 닭싸움을 시킬까봐 닭을 데리고 뺨감을 하러 간다.

그러고 다음날 남주는 혹시 모르기에 자신의 닭에게 고추장을 먹이고 닭싸움을 시킨다. 한참 남주의 닭이 우세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주의 닭은 약해졌고, 점순이네 닭이 남주의 닭을 쪼아 빈사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고 다음날 남주는 나무를 구하러 갔다가 집에 돌아 왔는데 자신의 닭과 점순이가

없길래 또 어디서 이상한 짓을 하겠구나 하며 언덕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점순이는 피리를 불며 닭싸움을 시키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본 남주는 화가 나서 가지고 있던 나뭇가지로 점순이의 닭을 때려 죽였다.

불안함에 시달리게 된 남주는 그만 울어버렸고, 점순이는 그 우는 남주를 귀여워하며 보고 있다가 점순이의 엄마가 오게 돼 동백꽃 속으로 남주와 함께 숨게 된다. 거기서 점순이는 남주에게 자신의 말을 잘 들으면 안 말하겠다고 하여 남주는 알겠다고 한다.

점순이는 요변에 빌려 읽은 연애 소설 때문인지 몰라도 아랫집에 사는 동갑내기인 남자 아이에게 좋아하는 감정을 느낀다. 그래서 매일 그 남자 아이를 따라다니곤 하는데 남자 아이는 점순이를 좋아하지도 않고 친구 그 이상으로 보지를 않아 매일 따라다니는 점순이가 귀찮기만 하다.

매일 점순이는 남자아이를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은 감자를 구워가지고 갔다. 점순이는 남자 아이가 받고 먹을 상상을 하니 기분이 좋기만 했지만 그 상상은 헛되었다. 남자 아이는 점순이가 말을 좀 기분 나쁘게 해서인지 감자를 먹지 않았고 점순이는 화가 났는지 남자아이를 째려보곤 그 자리를 떠났다. 남자 아이는 심히 당황하였다. 그 때부터 점순이와 남자 아이가 싸우게 된 계기가 되었다.

점순이는 예전부터 덕수를 좋아했다. 하지만 부끄러워 말도 한번 못 걸고 어떻게 친해져야 할지 고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덕수가 혼자 울타리를 만들고 있는 걸 보고 용기를 내서 감자 중 제일 크고 맛있어 보이는 감자를 집어 정성스럽게 감자를 굽는다. 맛있게 구운 감자를 덕수에게 주지만 덕수는 감자를 안 먹는다고 받지 않는다.

점순이는 남주가 좋아서 남주 옆에 계속 얼쩡거린다.

하지만 남주는 그런 점순이의 모습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남주는 눈치가 진짜 1도 없기 때문이다. 남주는 그런 점순이를 신경도 쓰지 않고 계속 일만 하고 있다. 점순이는 자기를 신경 안 쓰는 남주가 그래도 좋다. 점순이는 그래서 남주에게 감자를 줬는데 남주는 그걸 또 안 받아버리니 진짜 남주는 눈치가 없어도 드럽게 없다.

점순이는 요즘 덕수를 보면 가슴이 콩닥콩닥 거린다. 덕수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 닭에게 싸움을 붙이면 덕수가 날 찾아오겠지? 하는 마음에 닭에게 싸움을 붙였는데 덕수의 얼굴이 빨개져서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줄 알고 닭에게 계속 싸움을 붙였다.